

# ‘상승세 꺾인’ 페퍼스, 끝까지 GS칼텍스에 셋아웃 패



### 팀 공격 성공률 31.3%·리시브 효율 27.51% 그쳐 테일러 12득점 팀 최다... 23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GS칼텍스 서울Kixx를 상대로 우위를 잇는데 실패했다.

페퍼스는 1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에 0-3(19-25 20-25 20-25)으로 완패했다.

GS칼텍스를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고 있던 페퍼스는 이날 31.3%의 팀 공격 성공률과 27.54%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 상대의 41.51%와 37.04%에 크게 못 미치면서 승기를 내렸다.

승점을 더하지 못했지만 페퍼스는 5위(8승 14패·승점 25) 자리를 유지했다. GS칼텍스는 이날 시즌 첫 셋아웃 승리를 거뒀다.

지난 16일 개인 최다 32득점을 달성했던 테일러는 12득점(공격 성공률 29.73%)에 그쳤다. 그마저도 팀 최다 득점이었다.

장위가 9득점(66.67%), 이한비가 7득점(23.33%)으로 뒤를 이었고, 주장 박정아는 1득점에 범실 3개를 범하는 등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다. 1세트 초반 양 팀은 한 점씩 주고 받으면서 접전을 펼쳤다.

16-16에서 테일러의 공격이 네트에 걸렸고 연달

아 상대 블로킹에 막히면서 점수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페퍼스의 범실로 역전을 만들어 낸 GS칼텍스가 먼저 20점 고지에 다다랐다.

17-23상황, 페퍼스는 테일러의 킷오픈과 얽여르형의 직선 오픈 성공으로 열심히 추격했지만 상대 오세연의 속공과 박수빈의 후위공격자반칙으로 1세트를 내렸다.

2세트는 시작부터 이어진 랠리 끝에 이한비가 점수를 만들었다.

페퍼스가 선취점은 가져왔지만 박정아의 서브 범실 등으로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사이, GS칼텍스가 연속 3득점을 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팽팽한 흐름 끝에 장위가 높은 타점으로 만든 시간차-이동 공격, 테일러의 득점 그리고 상대 아시아 쿼터 투이의 공격 범실로 승부가 13-13 원점으로 돌아갔다.

페퍼스는 테일러가 안정적인 스윙으로 구사한 백어택에 장위의 속공과 이한비의 킷오픈을 더해 18-14로 역전했다.

하지만 페퍼스가 아쉬운 범실을 연달아 쏟아냈

고, GS칼텍스가 연속 8득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 GS칼텍스는 2세트에서만 팀내 최다 8득점을 올린 아웃사이드허터 유서연을 앞세워 2세트도 챙겼다.

GS칼텍스는 3세트에서도 강한 집중력으로 치고 나갔다.

서브·리시브가 많이 흔들린 페퍼스는 3세트 리시브 효율이 23.81%에 불과했다.

이에 팀이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16-16 동점을 만들어냈지만 상대 실바의 철벽 블로킹과 오세연의 속공, 권민지의 킷오픈에 17-21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그리고 테일러의 공격 범실과 GS칼텍스 유서연의 연속 득점으로 순식간에 경기는 페퍼스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이날 GS칼텍스는 외국인 주포 실바와 국내 공격수 유서연을 앞세워 승리를 닦았다.

최근 3경기에서 151득점을 올렸던 ‘주포’ 실바는 이날 25득점(공격 성공률 43.75%)을 올리며 GS칼텍스를 승리로 이끌었다.

지난 16일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한 페퍼스는 이날 경기로 2연패를 기록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GS칼텍스 서울Kixx에 세트스코어 0-3으로 셋아웃 패했다. 장위가 양 손으로 공을 밀어 넣고 있다. (KOVO 제공)

## ‘피겨 간판’ 차준환, 토리노 동계 U대회 ‘동메달’

### ‘클린연기’로 프리서 반등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준환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7.12점, 예술점수(PCS) 85.42점을 합쳐 총점 182.54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82.40점으로 5위에 그쳤던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최종 264.94점으로 3위에 올라 시상대에 섰다.

1위는 일본의 가가야마 유마(289.04점), 2위는 이탈리아의 다니엘 그라슬(280.56점)이다.

차준환은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 선율에 맞춰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뛰고 수행점수(GOE) 2.33점을 챙겼다.

이어 쿼드러플 토티프도 깔끔하게 성공한 차준환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악셀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스텝 시퀀스에서 최고 난도인 레벨 4를 받아 섬세함을 채운 차준환은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연기를 트리플 플립-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로 시작해 GOE 0.95점을 추가했다.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역시 군더더기 없이 뒀던 차준환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레



19일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차준환. /연합뉴스

벨 4로 처리한 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플립도 성공했다.

차준환은 연기 후반부 코레오 시퀀스, 플라이 카멜 스핀(레벨 4), 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

핀(레벨 4)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시상대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이시형은 최종 203.10점으로 9위, 차영현(이상 고려대)은 201.34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조기 사퇴’ 이기흥 회장 “일상으로 돌아간다”

### 자필 고별 편지 전해

다음 달 27일까지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고별 편지를 보내 체육인으로서 삶을 되돌아보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19일 측근을 통해 보내온 자필 편지에서 “함께한 영광과 고뇌의 순간들! 스포츠와 함께한 제 인생 후반부 25년은 참으로 행복하

고 보람 있는 순간들이었다”면서 “이제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저의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뒤 8년간 재임했던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토마스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도 IOC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파스

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면서 “항상 건강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왔던 체육회의 온전한 자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 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또한 꼭 실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최가은, FIS 스노보드 월드컵서 동메달

### 우승은 클로이 김

최가은(세화여고)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가은은 19일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24-2025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3.25점을 기록했다.

1차 시기에서 93.25점을 따내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의 96.50점에 이어 2위에 오른 최가은은 2차 시기에서 94.50점을 받은 매디 마스트로(미국)에게 2위를 내주고 3위로 대회를 마쳤다.

4위는 89.75점의 오노 미스키(일본)다. 최가은은 이날 경기가 1년 만의 복귀전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인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FIS 월드컵 도중 허리를 다쳐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당시 신동빈 룩테그림 회장이 최가은의 스위스 현지 수술비 등 치료비 7000만원을 후원했다.

2023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최가은은 지난해 1월 허리 부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이날 복귀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며 시즌 전망을 밝혔다.

최가은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는 클로이 김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날 우승한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연달아 목에 건 교포 선수다.

최가은은 2월에 열리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2024-2025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월드컵 동메달을 따낸 최가은. <대한스키협회 제공>

에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가은은 경기 후 매니지먼트 회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1년 전 다친 곳에서 복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걱정이었지만 욕심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환희**

양홍길 개인전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